체류형 생태관광 중심지 도약

임실군, 옥정호 출렁다리·붕어섬 생태공원 개장 3년 만에 방문객 176만명 돌파

임실군의 민선 8기 최대 역점사업인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이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명품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임실군의 민선 8기 최대 역점사업인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이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명품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을 찾은 관광객은 44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2022년 10월 옥정호 출렁다리 개통 이후 누적 방문객 176만여 명을 기록하며, 개장 3년여 만에 전국적인 인기 관광지로 급부상했다.

이 같은 성과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이 '대박 관광지' 성공 사례로 공식 언급되며 대외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경제적 파급효과 역시 눈에 띄었다. 2025년 한 해 붕어섬 생태공원 입장수입은 14억원, 생태공원 내 편의시설 판매장 20억원·카페 3억원·음식점 1억원 등 24억원의 운영 매출을 기록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군은 사계절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관 조성에도 지속 힘써왔다.

지난해 봄에는 '2025 임실 옥정호 벚꽃축제'를 개최해 이틀간 3만 5천여 명이 방문했으며, 가을철에는 국화, 코스모스, 구절초 등 계절꽃 식재를 통해 방문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아왔다.

아울러, 2026년 새해 첫날인 1월 1일 옥정호 국사봉에서 열린 해맞이 행사에는 3,500여 명의 방문객이 몰려 장엄한 첫 일출과 함께 희망과 도약의 새해를 기원하며 천만 관광 임실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한편, 군은 한파와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예방을 위해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동절기 휴장한다.

휴장 기간 시설 전반에 대한 정밀 점검과 환경 개선을 실시해, 3월 1일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모습으로 재개장할 계획이다.

'임실방문의 해'였던 지난 한 해 임실군은 잠정 연간 방문객 920만명을 기록하며 천만관광 시대를 목전에 두는 성과를 거뒀다.

심 민 군수는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 국사봉 등 임실의 핵심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사계절 머무는 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며 "지난해 920만 관광객을 불러 모은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반드시 천만 관광 시대를 완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보건소, 통합돌봄 확대 최선

남원시보건소가 시 통합돌봄 확대 추진에 발 맞추어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지·의료·요양 등의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제도로, 대상자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그리고 지자체장이 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취약계층으로 규정되며, 방문진료, 재택간호, 방문요양 및 목욕, 식사·이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에 따르면 작년 11월 전북도의회에서는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전북 실정에 맞는 모델을 확정하기 위한 논의로 '전북형 노인통합돌봄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하고, 도출된 시사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최종보고에서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권근상 교수는 노인의 노쇠정도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전략을 제시, 남원시보건소는 지난해 12월 26일 권근상 교수를 초청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교육에서는 전북형 노인통합돌봄 모형 개발 연구내용과 노쇠 정도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접근방향에 대해 공유해 통합돌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도록 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한용재 보건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보건소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건 서비스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보건소, 아동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돕는다

남원시 보건소(소장 한용재)는 겨울방학을 맞아 관내 16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아동들의 올바른 성장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꿈자람 건강 Jumping up'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성장기 아동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비만 예방을 목표로 체성분 측정, 신체활동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영양·비만, 흡연예방, 음주폐해예방 건강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전문가가 운동·영양·비만 예방을 위한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국제드론제전 브랜드 가치↑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인증전시회' 자격 획득

남원시는 산업통상부 지정 인증기관인 한국전시산업진흥회(AKEI)로부터 전시회 인증제도 심사를 거쳐 '인증전시회' 자격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해당 인증은 지난해 10월 개최된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의 전시 분야에 적용된 것으로, 드론·로봇 분야 대표 산업 전시회로서의 공신력과 브랜드 가치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 제도는 주최기관이 제출한 주요 전시자료를 산업통상부가 지정한 인증기관(AKEI)이 조사·검증해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전시회'로 선정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 인증을 받은 전시회는 성과가 객관적인 데이터로 검증·공개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남원시는 이번 인증을 통해 산업통상부 등 관계기관의 전시회 지원사업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했으며, 해외 네트워크 연계와 국제 교류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열린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에는 79개 기업·기관이 참가해 드론·로봇 분야의 최신 기술과 산업 흐름을 공유했으며, 산업·정책 컨퍼런스와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드론·로봇 스포츠 대회, 글로컬 푸드존 등을 운영해 참여기업과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고, 나흘간 진행된 행사에는 총 24만 6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

남원시는 인증전시회로서 확보한 신뢰도를 바탕으로 참여기업과 관람객 유치 확대에 힘쓰고, 2026년에도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연계해 드론·로봇 분야 전시·컨퍼런스 및 체험 콘텐츠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국제드론제전이 전시회 인증으로 공신력과 브랜드 가치가 한층 높아졌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과 기관을 유치하고, 국내·외 교류와 산업 네트워킹 확장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개관 준비 박차

순창군이 유기농업 확산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인 '유기농산업 복합센터'를 올해 개관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군은 최근 센터 내 전시물 구성과 공간 인테리어,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용역에 착수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유기농산업 복합센터는 순창읍 백산리 발효테마파크 내에 위치하며 부지면적 1만 3,152㎡, 연면적 5,221㎡ 규모의 지상 3층 건물로 조성되고 있다.

단순한 판매 공간을 넘어 유기농의 가치를 소비자가 직접 체험하고 배우는 복합형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센터에는 대규모 행사와 포럼이 가능한 컨벤션 홀을 비롯해 순창산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하는 유기농 매장과 베이커리, 유기농업의 철학을 전달하는 전시·홍보관, 가족 단위 체험이 가능한 건강식품 체험관, 전문 교육을 위한 유기농 교육관 등이 들어선다.

이번 전시물 구성과 인테리어 조성을 위한 용역에는 총 12억 8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군은 공간별로 차별화된 테마를 부여하고 방문객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실감형 콘텐츠와 감각적인 디자인을 접목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시에 진행 중인 관리·운영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 수지 분석, 마케팅 전략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특히 학교 텃밭 체험 등 기존 프로그램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체험 콘텐츠를 개발해 단발성 방문에 그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유기농산업 복합센터는 순창군 친환경 농업의 위상을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핵심 거점"이라며 "단순한 시설을 넘어 전국에서 찾는 유기농 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의회, 새해 맞아 전 직원 회의 진행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가 5일, 새해를 맞아 김영태 의장 주재로 사무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로 부임한 임점숙 사무국장의 인사와 임 국장의 향후 의회 운영과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에 대한 당부가 이어지고,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언행 유의를 강조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조직 내 질서 유지와 규칙 준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부서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효율적인 의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했다.

김영태 의장은 "새해를 맞아 새로운 각오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직원들 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업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는 데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체납자 보조금 지원 관허사업 참여 제한 강화

순창군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과 관허사업 제한을 대폭 강화하며 공정한 납세 질서 확립에 나섰다.

군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과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앞으로 각종 사업 신청 단계에서 체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과 관허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위해 군은 관련 부서는 물론 읍·면 단위까지 협력 체계를 강화해 체납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체납 징수를 넘어 성실 납세의 가치를 높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군민이 각종 혜택에서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